

# 충북 사랑의 온도탑 102도 '9년 연속 목표 달성'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20 나눔캠페인... 73일간 대장정 마무리

총액 77억 4000만원... 목표액 75억 8400만원의 102%

현금 48억 · 물품 29억, 개인 25억 · 법인 52억여원 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0 나눔캠페인이 73일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충북은 올해 사랑의 온도탑 102.1도를 기록하며 9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충북모금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된 희망 2020 나눔캠페인은 75억8천4백만원의 목표로 전개해 77억4천만원의 성금을 모아 사랑의온도 102.1도를 기록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의 성금 내역을 보면 현금기부는 48억1000만원(62.3%),

물품기부는 29억2000만원(37.7%)으로 집계됐다. 개인기부는 25억5000만원, 법인기부는 51억9000만원이었다.

노영수 충북모금회장은 "충북도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9년 연속 100도를 달성하게 되었다."며 "정성으로 모아주시신 귀중한 성금을 공정하게 나눔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당공원에서 진행된 캠페인 폐막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직원들의 기념사진 촬영으로 간단히 치러졌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일 청주 상당공원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에서 희망 2020 나눔캠페인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안전·문화·복지 집적화' 충북 재난안전체험 복합타운

청주 월오동 일원 9756㎡ 규모... 내년 6월 준공 · 개관 예정  
재난안전체험관 연계 국민체육센터-어린이 안전마을 구축

충북도는 재난안전체험관 건립과 연계해 국내 최초 안전·문화·복지의 클러스터화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북 재난안전체험 복합타운(이하 복합타운)을 조성한다.

지난해 6월 건립계획이 수립된 복합타운은 '사람중심 안전교육 허브' 역할을 위한 재난안전체험관과 '생존수영을 전 국민 생활체육화로 정착하기 위하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생

명존중 안전우선의 아이들의 복합 놀이 공간인 어린이 안전마을로 구성했다.

도는 복합타운 조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체험관 건립비 60억원, 생활SOC사업 공모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0억원 총 9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총사업비는 모두 270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170억원)으로 재난안전 체

험관 120억원(행안부 60억원, 지방비 60억원), 생존 수영장 130억원(문체부 30억원, 지방비 100억원), 어린이 안전마을 20억원(행안부 10억원, 지방비 1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재난안전 체험관은 청주 월오동181일원 2만5623㎡ 중 9756㎡ 규모로 5개 체험시설과 3개 기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공사 착공은 올 3월이고, 전시설공사 착공은 올 5월 예정이다. 준공 및 개관은 2021년 6월로 계획돼 있다.

생존수영 특화형 국민체육센터는 청주 월오동161 일원에 부지면적 7817

㎡ 규모로 지어진다.

어린이 안전마을은 청주 월오동160일원 2554㎡ 규모로 5개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충북재난안전체험 복합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어린이 안전마을 연계사업으로 건립된다.

충북도는 이로써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든든한 토대와 성장 기틀을 마련했다.

충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재난안전체험 복합타운 조성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현으로 '대한민국 안전제일도 충북'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충북도 '청년기능인력 취업지원사업' 추진

충북도는 올해부터 우수한 청년기능인력의 도내 유출 방지와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기능인력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행안부 공모사업인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공모, 최종 선정되어 국비 1.3억을 포함한 사업비 3.1억을 확보하였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기능인력(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으로 심사에 의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최대 2년간 기능인력 인건비(연 최대 1,920만원 한도, 기업부담금 20%)지원과 채용인력에 대한 지역 정착지원금(월 20만원)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규로 채용되는

청년인력에 대해서는 분야별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포함한 26시간 이상의 교육지원은 물론 분기별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청년기능인력 취업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팀(☎043-230-9771)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한기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등 도내 우수한 청년기능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충북을 떠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본 사업을 통해 우수한 지역 청년들이 도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기를 바라며,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충북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66%까지... 올해 졸업앨범비 신설

충북도교육청이 지속적인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신설한다.

고등학교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인 2·3학년생을 제외하고 1학년생 대상으로 지원된다.

교과학비(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는 기존 중위소득 66%, 읍·면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까지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기존 중위소득 64%, 면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까지 지원했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도 교과학비와 동일하게 기존 중위소

득 66%까지 확대된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한다.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66%까지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된다.

현장체험학습비는 면지역 초·중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존 중위소득 66%까지 지원한다.

작년에는 면지역 초·중학생, 특수

교육대상학생, 기존 중위소득 60%까지 지원했다.

중·고 신입생 교복비는 현장체험학습비와 동일하게 기존 중위소득 66%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 다자녀(셋째 이후) 신입생에게도 교복비를 1인당 25만5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게 된다.

중학교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기존 중위소득 66%)신입생

에게는 작년과 동일하게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5만원이 별도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졸업앨범비를 신설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기존 중위소득 66%)졸업생에게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교육청(☎043-290-2784~5)로 문의하면 된다.

#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255-0504, 253-0504 FAX:(043)222-0504

H.P: 010-9566-0504 E-mail: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 ‘창업 꿈꾸는 청년들이여 단양으로’

# 충주·제천·단양 청소년 지원 위해 ‘협약’

### 지난해 인재 8명 발굴, 1억4400만원 창업지원금 확정 올해 5명 신규모집... 관내 19~49세 이하로 기준 확대

관광1번지 단양군이 창업을 꿈꾸는 지역 청년들에게 청년창업의 꿈과 희망의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단양군 청년창업공간조성 지원 사업을 실시해 청년창업인재 8명을 발굴해 1억4천400만원의 창업지원금 지원을 확정했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이 편입집, 마을

자립공유카페, 흑백사진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비누공방 등의 창업에 도전했다. 군의 창업지원 사업은 처음부터 순조롭진 않았다. 지역청년들의 부재,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청년들의 신청이 저조했다. 군은 청년모집을 포기하지 않고 지역제한 없이 전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해 4명의 청년

창업자들이 단양군으로 전입하는 등 사업 추진에 돌파구를 찾아 나갔다. 청년 창업자들도 처음 막막했던 창업 사업에 군의 도움으로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며 용기와 희망을 준 단양군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군은 올해도 기존 청년창업자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 청년예비창업자 5명을 모집했다. 군은 기존 19~39세 이하의 신청 대상을 올해부터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 창업에 뜻을 둔 만 19~4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취업 연계를 위한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인재고용인센티브 사업 등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창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활력 넘치는 단양 건설에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모두 6개 기관 ‘맞손’... 다음 달 21일 연합 워크숍 예정



충주·제천·단양 청소년수련시설은 6일 충주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사업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활동 운영을 위한 인적·행정적 지원 및 교류, 청소년 교류 활동 및 자치능력 개발, 청소년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및 협의, 청소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이날 협약으로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사업, 교류활동, 공동연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진 수련원장은 “협약을 계기로 충주, 제천, 단양 지역의 청소년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기관들은 내달 21일 충주시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 연합 워크숍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천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개원식에서는 이상천 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장애 청소년 직업 훈련 맡겨주세요”

### 제천 신백동 훈련센터 개원... 지상 2층·561㎡ 규모

제천 지역 장애 청소년들의 직업 적응 훈련을 돕는 시설이 관내로 62(신백동 194-2)에 들어섰

다. 시는 이곳에 신축한 시설 개원식을 3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설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맡아 운영한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상천 시장을 비롯해 홍석용 의회 의장, 이 후삼 국회의원, 도·시의원, 운영법인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제천시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은 연면적 561㎡, 지상 2층 규모로 훈련실 3개, 식당, 사무실 등을 갖췄다. 이 시설은 장애 청소년들에게 직업 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해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이상천 시장은 기념 축사에서 “앞으로도 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데에 차별 없는 제천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천에 사는 장애 청소년이면 누구나 입소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043-652-0420)으로 하면 된다.

## 제천시 읍·면 ‘주민학당’ 운영

제천시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사각지역과 소외 계층 해소를 위한 주민학당(住民學堂)을 운영한다. 주민학당은 평생학습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마을주민이 주도

하는 운영으로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화합 및 소통의 장을 구축한다. 읍·면 지역별로 지역특화, 지역 인력 인프라 구축, 지역민 일자리 창출, 창업, 부업 등 자격과

정, 학습 재능기부,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주민 스스로 개발해 신청하면 된다. 단순한 취미활동, 오락성 여가 프로그램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주민학당에 선정되면 오는 4월부터 강사를 배정해 총 10~15회(주1회 2시간)까지 운영되며 교재 및 재료비를 제외한

강의료를 시가 지원한다. 올해는 읍·면지역 총 2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2021년부터는 확대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 사각지역과 학습 소외계층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학습 소외계층을 해소하고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주시 어린이집 자동출결 시스템 보급

청주시가 어린이와 부모,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

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보

급한다.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과 추가적 돌봄이 더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 30분)’으로 구분해 운영됨에 따라,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자출결시스템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3억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0년 신규 설치 예정인 어린이집을 포함해 709곳의 어린

이집에 전자출결시스템 설치비와 아동 1인당 태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전자출결시스템은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리더기로 아동이 소지한 태그를 감지해 등·하원 시간을 인식하며 학부모에게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부모는 아이의 등·하원 시각을 안내하는 안심 문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은 출석 서류 관리 등 기존 행정업무가 경감되어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 충주시청소년수련원은 6일 제천시·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부권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

충주시청소년수련원은 6일 제천시·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부권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충북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북부권청소년활동거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행사에는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제천 청소년문화의집, 제천 청소년문화의집, 단양 청소년수련관, 단양 청소년문화의집, 단양 매햄 청소년문화의집 등 충

## 충주시 “빅데이터 분석해 교통안전 확보할 것”

### 380억7700만원 투입... 교통사고 사망자 수 32%↓ 목표

충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의 ‘2020년 교통안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섰다. 충주시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교통안전 사업비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총 380억7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5건), 도로교통 안전(5건), 교통환경 개선(4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315건으로 전년 대비 6건이 증가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21명에서 2019년 3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3명 이하로 대폭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사고 정비·확충(5건), 도로교통 안전(5건), 교통환경 개선(4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 확충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며, 교행 운전자 운전면허 가진 반납 지원과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활용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제일 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진천군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

### 청년 수급자 희망키움·자활 사업 참여자 내일키움통장 등

진천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활동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저축계좌 프로그램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수급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I,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II, 청년 수급자

를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자활 사업 참여자를 위한 내일키움통장으로 구성됐으며 차상위 청년들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도 신규 원사업을 추진한다. 각 통장별 가입 기준과 자격요건에 차이는 있으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일하는 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까

지 본인저축액에 1대1 매칭해 최대 월1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저축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명 완료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951)로 문의하면 된다.

# 1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엔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개령센터, CJ수원반포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 자문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낙농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낙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부로, CJ유통(중평점), 송림푸드, 청주유통, 예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과(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엘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불어, (주)피아씨푸드, (주)김경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쟁플레이스, 침양식품, 리온알에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흥덕기초푸드뱅크 동양오츠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늘보쌈, 설악추어탕, 좋은아침, (주)게이씨푸드, 명동보리밭, 삼육두유서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허청주대점
- 청주시라니누리푸드뱅크 참조은유통, 델리스(분평동), 백설유통, 홀몰러

- 스익스플러스, 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뜨(개신점), 파리바게뜨(북대점), 바우어, 좋은아침(북대점), 두레주르(비하계통점), 단킨도너츠(강서점), 팡스팡스, 롤링핀(지웰시티점), 이츠굿해이커리, 금관마트, 동청주오뚜기, 초이스베이커리, 플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바게뜨(가경대우), 청도너츠, 바로구운빵, 도담영농조합법인, 청풍명월, 명성물류, 머거버식품, 자연솔푸드, 무드글로리, 한솔, 비전상사, 태성우수, 도담, 등고개농장, 제훈우유, 장수우유, 오뚜기대리점, 중앙제과(주)
- 청주드림푸드뱅크 파리바게뜨(원평점, 분평우성점, 금천부영점, 산남점, 농협하나로점, 용암효성점, 용암현대점, 건영점, 뉴타운점, 올랑칸타빌점, 율랑점, 개신점), 수암골 영광의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등, 용암서문우등, (주)떡과풍경, (주)민영, 김대협해이커리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백식품, 두레주르 율랑점

- 청주새영푸드뱅크 좋은아침오창점, 파리바게뜨쌍용점, 두레주르한라점, 두레주르산업단지점, 기문출은날, 그린하우스푸드, 오정출마트, 자갈치 민속떡집, 칠떡궁합, 광주기독교서점, 전원푸드락, 낙원떡방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두레주르 금천정자점, 파리바게뜨 분평점, 한솔 제2농장, 공천떡집,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두레주르 금천뉴타운, 파베오 베이커리, 행복8떡집, 유신떡방,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떡이랑, 두레주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안역일점, 영농조합법인 희어울, 홀프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안점, 천명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획(후생사), (주)월드이십일 에이치규, 자연애연합영농조합법인, 천명, 김가네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주주점, 서울우유지트, 시아스우유, 두레주르 분평점, 목향정교, 금관할인마트 율랑점, 청주특남(주), 무외에뚜와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신과들F&C, 파리바게뜨 오정중앙점

- 증평군푸드뱅크 거림기계, GS슈퍼 증평점, 케이하우스, 금호숲 풀밭비, 서산식품, 좋은아침 율랑점, 파리바게뜨 내수점, 한구식품, 오뚜기, 단비상사, 단킨도너츠 증평점, 델리칸 증평점, 그린우유, GS25 증평대리점
- 괴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괴산잡곡, 신선나도, 신선촌, 운산식품, 제중당약국, 풀무원, 서미숙, 유인숙, 장국희, 파베오베이커리, 두레주르괴산점, 파리바게뜨괴산점, 매햄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성베이커리
- 옥천군푸드뱅크 두레주르 엘마트점, 구가네 농이보강, 조마루 갑지탕, 독도가든, 행운목, 미가(한정식), 이가화로, 옥천천담토리타리점, (주)한일푸드
- 영동누리푸드뱅크 두레주르(김홍옥), (주)뽕얼굴가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서울우유(보은점), (주)서우화랑, CJ나눔재단, 롯데

- 대일(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 삼원농장, 영양떡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단킨도너츠(금양), (주)이가지연면, (주)후드원, 김점철소머리국밥, (주)맑은해오름,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두레주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로,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백암), 삼육두유, 파리바게뜨(덕산점)
-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파리바게뜨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토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가왕만두떡방, 김수혁, 델리칸(이월점), 에스엔푸드, 자혜식품, 명기떡집, CJ푸드빌, 해마로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복한 떡집, 이삭식품, 명기떡집, 생가진식품, 맑은해오름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물식품, 대하우유, 델리칸충주교현점, 떡보

- 의하루, 두레주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와우유, 삼일상회, 서울우유치즈충주대리점, 유원우유, 육사청과, 은혜청과, (주)미림농산, CS코리아, 자미원에프앤지, 충주청과, 하나로베이커리(충주점), 한아름청과
-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우유, 두리메리케,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씨푸드, 문우통,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태성김치, 푸른촌, 풀이라인, 365할인마트, 크리 스프리크제천중앙점, 호수상사
- 단양군푸드뱅크 진천면사랑, 진천N푸드, 음성CJ, 음성(주)진천, 충주김치나라, 제천푸른촌, 롯데칠성, 일죽청정원, 제천씨알푸드, CJ 진천, 단양(주)정동, 단양두순식품, 서울우유 단양대리점, 파리바게뜨 단양대리점
- 단양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상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쎄디푸드, 대상청정원

#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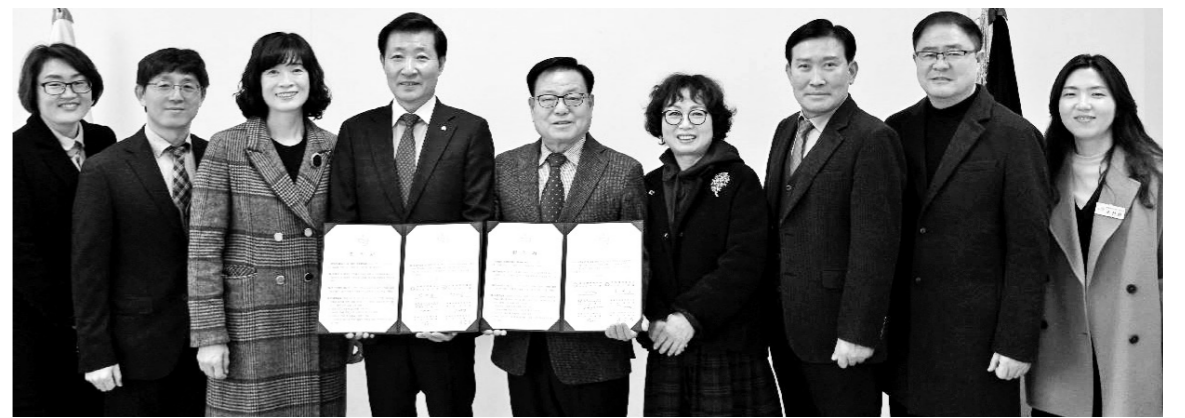
### 35억원 투입·2021년 완공... 영유아 학습·놀이공간 제공 보육 사각지대 해소·청년 인구유입 등 저출산 대응 기대

영동군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영동군 영유아들의 행복놀이터가 될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선정과 국비 예산 10억원을 확보했다. 영동군 민선7기 공약사업이자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영동을 위한 역점시책 중 맞춤형 영유아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사업의 선정에는 박세복 군수

를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의 유치의지와 노력, 지역 국회의원과 총북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다.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의 질을 한단계 높일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지역 영유아와 학부모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영동을 일대해 지상1층 1천㎡ 규모, 총 건립비용 35억원(국비 10억원, 도비3억원, 군비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0년 착공해, 2021년 완공

을 목표로 장남감대여실, 실내의 놀이터, 부모교육실, 상담실, 맘카페, 프로그램실 등을 구성한다. 지역 영유아들이 언제든지 방문해 행복하고 즐겁게 놀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보육사각 해소, 맘을 놓고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부3군에 거점형 육아지원 중심지 역할과 농촌지역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와 젊은 세대 인구유입 등 저출산 대책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복지부 생

활SOC 공모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실내놀이체험실 설치지원 선정에 국비1억을 확보, 센터 건립시 병행 추진하여 놀이체험실을 한층 더 안전하고 다양하게 설계하고 군예산 절감에도 기여했다. 군은 아이키우기 좋은 영동만들기의 보육정책과 더불어, 정책을 뒷받침할 각종 보육시설을 건립해 지역 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젊은 세대 인구유입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시설들이 모든 영유아와 부모들이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행복놀이터로 자리매김에 지역의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한 증평복지재단과 증평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이 1000만원의 기부금 기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증평복지재단-증평새마을금고 '맞손'

(재)증평복지재단과 증평새마을금고는 12일 증평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역복지 및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의 관련 기관 간의 소통, 협력 및 연계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두 기관은 증평군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 사업안내 및 정보 제공, 지역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역복지 및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의 관련 기관 간의 소통, 협력 및 연계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새마을금고 임대섭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해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증평군자원봉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재단 연기봉 이사장은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영동군 "치매환자 재활 도와드려요"

### 방문요양서비스·돌봄 모니터링 등 환자 인지활동 지원

영동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 사

업을 실시한다. 이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은 주간보호 이용, 방문요양서비스 등 각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치매환자들의 자립적인 일상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기능회복훈련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월2회 이상 방문, 전화, 내소 등 치매환자 돌봄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만족 여부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독거노인세대와, 치매환자로 인해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생활하는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 줌으로써 도움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건강기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지 지원등급 및 등급신청대기자 중 50세 이상 치매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영동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주 지원내용은 주간보호, 방문요양 및 단기보호 서비스의 비용 지원 등이며, 건강기준에 따라 지원일수 내용이 각각 산정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 이용 보호자는 "직장생활로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어 홀로 계시는 치매환자 어머니를 자주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상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었는데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마음의 큰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영동군치매안심센터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조호물품 제공 및 다양한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문의는 영동군치매안심센터(☎043-740-5946~9)로 연락하면 된다.



영동군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치매환자 가정을 방문해 인지활동 등 기능회복 재활을 돕고 있다.

## 증평군,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에 126억원 투입

### 양육수당·어린이집 운영 지원·교직원 처우 개선 어린이 통학 차량 카시트, 냉·난방비 지원 첫 추진

증평군이 올해 영유아 보육에 126억 원을 투입, 열린 보육환경 조성에 나선다. 사업은 크게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나뉜다. 가장 많은 예산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에 편성했다. 총 예산은 90억 원으로, 전체 보육 예산의 71%에 달한다. 만 0~5세 영유아에게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보육

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영유아에게는 정부지원금에 학부모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과 차별 없는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는 25억 원을 들인다. 보육교직원·보조교사 인건비와 대체교사, 어린이집 아이간호(보육)도우미를 지원

해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에 대처하는 한편, 안전공제료와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을 지원하며 어린이집의 안전성을 높인다. 어린이통학차량 카시트(600개), 어린이집 냉·난방비, 자동출결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한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도 집중한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민선 5기 공약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군은 11억 원을 들여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비와 담임교사 수당,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

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수회 등을 지원한다. 한편, 군은 오는 3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종일반은 폐지하고 연장보육반을 운영, 맞벌이 부부의 보육 걱정을 덜어준다. 연장보육반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장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한다. 기존 종일반 이용 아동은 별도 신청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규로 신청하는 만 3~5세 아동은 별도 자격요건 없이 어린이집과 상담 후 이용할 수 있으며, 만 0~2세 아동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어린이집과 상담 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 괴산군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문자알림 서비스

괴산군 보건소가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만료일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식품영업자 및 종사자 등은 건강진단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군 보건소는 이달부터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7일 전

에 '000님의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은 2020년 0월 0일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송부, 제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해 위생업소 점검 시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정기 건강검진 및 위생관리를 도와 공중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 보건소는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군 보건소를 방문해 문자메시지 수신 정보에 동의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식품 관련 종사자들이 정기 건강진단을 제때 받도록 도와 식중독 등 식품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미검진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옥천군 동이면,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

### 삼기능장-맞춤형 복지팀 홀몸 어르신에 계란 지원 협약

옥천군 동이면이 이웃과 함께 하는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이에 동이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은 '알먹고 꼬꼬데이' 특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서정기 면장, 삼기능장 임형섭·조도순 대표, 동이면 맞춤형복지팀 등이 참석해 '알먹고 꼬꼬데이' 사업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알먹고 꼬꼬데이'는 동이면 맞춤형복지팀에서 이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특화사업으로 동이면 내 홀몸어르신 보살핌서비스 대상자 10가구에 홀몸어르신 지킴이 5명이 월 1회씩 해당 가구를 찾아가 계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옥천군 동이면 서정기 면장이 삼기능장과 '알먹고 꼬꼬데이' 특화사업 참여를 위한 협약을 하고 있다.

삼기능장 관계자는 "예전부터 홀몸어르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동이면 맞춤형복지팀의 특화사업 참여를 통해 이웃의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정기 면장은 "이번 알먹고 꼬꼬데이 사업의 동참으로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의 따뜻한 손길들이 이어져 행복이 가득한 지역사회가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 복잡한 복지 서비스 ‘원스톱’ 제공

### 정보 제공 동의하면 알아서 서비스 파악·제공 ‘편리’ 공공보조금도 한번에 확인·신청... 2022년까지 구축

복지나 보조금, 생애 시기별 지원 등 공공 서비스가 점차 원스톱(한 묶음) 방식으로 바뀐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0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내용을 보면, 2021년까지 공공 서비스 가운데 복지 서비스는 '복지멤버십'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먼저

알려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본인이 동의하면 정부가 나이와 소득, 재산 등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복지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해 알려주고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초·장애인 연금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신청해야 했다.

또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현금이나 물품 등 공공 보조금도 한 번에 확인해서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기초수급자, 장애인, 건강보험료, 중·고교 재학 여부 등 30가지 정보를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이와 함께 생애 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현재의 '상속'과 '출산'에서 올해 상반기 '임신'과 '돌봄'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10가지 이상으로 늘린다. 예를 들어, 임신 서비스를 신청하면 엽산·철분제, 진료비, 에너지바우처 등 14가지,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돌봄 등 4가지를 한꺼번에 알려주고 지원한다. 이밖에 국민참여예산과 '도전한국' 프로그램 등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 민·관 협력 사업에서 시민단체들의 자율성 확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행정 업무 효율 개선 등 정부혁신에 나선다.

# 장애 대학생 교육 지원책 ‘청사진’ 나왔다

### 속기사·수어 통역사 등 교육지원인력 국고보조금 ↑

정부가 1만명에 달하는 장애 대학생 교육 지원책을 발표했다. 18일 교육부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정책으로 지난해 기준 9,653명인 장애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 대학 의견 수렴 후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

를 거쳐 확정됐다. 2006년 4,045명에 그쳤던 장애대학생은 2010년 5,213명, 2015년 8,598명에 이어 지난해 약 1만 명 규모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장애 대학생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늘어난다. 그동안 장애대학생을 지원하는

교육부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인력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월 1인당 지원 한도액이 156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이 186만원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해당 인력 규모를 지난해 160명에서 2022년까지 2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교육지원인력을 통한 현장실습형 교육이 어려운 대학을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 연수도 올해 실시된다.

학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취업을 위해서는 교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장애 대학생 취업 지원을 위해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장애학생 관련 지표를 신설해 교직 이수 진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대학생들이 더는 장애를 장벽으로 느끼지 않고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끊지 말아야”

### 인권위 “지원 중단시 생명 위험... 인권침해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65세를 기점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연령 제한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12명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당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에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이를 방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직권으로 긴급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 따르면 서울과 대구, 경기도에 거주하는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 12명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

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만 65세가 되면 서 하루에 최대 22시간까지 받아온 활동지원서비스를 3~4시간 밖에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들은 활동지원이 중단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지난해 11월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시간을 축소하는 현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로 판단해 긴급구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들이 유사한 인권침해를 당할 것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에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촉구하는 긴급 정책 권고를 내렸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 3명을 대상으로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끊지 말라는 긴급구제를 권고한 바 있다.

#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앱 다운 필수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을 스스로 진단하는 앱(App)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건강 상태를 매일 입력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국발 입국자 중 앱을 설치하고 필수 정보를 입력한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 앱은 공항과 항만 내 간판과 특별입국신고서에 적힌 URL(인터넷 주소)과 QR코드로 접속해 설

치할 수 있다. 앱을 설치한 뒤에는 매일 오전 10시에 문자메시지와 알림을 받고 기침과 인후통, 발열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건강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같은 날 오후 2~4시께 입력 안내를 추가로 받는다. 입국한 지 2일 뒤에도 진단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방역 당국이 안내 전화를 한다. 우선으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이 위치 파악에 나선다. 앱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이용할 수 있다. 입력자의 건강 정보는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가 수집한다. 앱에는 선별진료소 연락처와 질병관리본부 상담콜센터(☎ 1339) 등의 정보가 들어 있다.

# 코로나19 분리진료 ‘국민안심병원’ 운영

### 병원 내 바이러스 전파 예방

정부가 국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불안감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한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의 모든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으로, 코로나19 감염의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 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

을 고려해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에서는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의료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를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하고,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해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

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한다. 특히 국민안심병원에서는 방문객 통제와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하는데,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은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에서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한다. 또한 선정된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신속히 공개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지난해 60대 취업자 ↑ ... 30~40대는 ↓

# 취업자 늘었지만 여전히 어두운 고용시장

### 연간 취업자 목표 초과했지만 ‘단기 취업자’만 증가 “민간 일자리 창출 부진 탓” 여론... 올해도 부정적 관측

지난해 취업자가 총 2천712만3천 명으로, 전년보다 30만 명 넘게 늘며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에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30~40대 취업자는 줄었기 때문이다. 또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초단시간 취업자가 늘었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인구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다.

1991년(26만6천 명)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해 40대 인구가 전년보다 13만7천 명(1.2%) 줄었다고 하지만 취업자는 이보다 더 큰 1.9%가 감소했다. 50대와 20대도 취업자가 각각 9만8천 명, 4만8천 명 늘었지만 주당 1~17시간 일하는 취업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보다 30만 명가량(19.8%) 늘어 1980년 통계를 집계한 후 가장 많이 늘었고, 특히 20대에 증가 폭이 컸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증가 폭이 10만5천 명(0.5%)에 그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은 60.9%로 전년보다 0.2% 상승하며 1997년(60.9%)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연간 취업자는 전년보다 30만1천 명 늘며 정부 목표인 29만 명을 초과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긴 힘들다. 고용 훈풍이 60세 이상에서 주로 불고, ‘경제 허리’를 담당하는 30~40대에선 오히려 악화했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60세 이상에선 취업자가 37만7천 명 늘었다. 이는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하지만 40대는 16만2천 명, 30대는 5만3천 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는

산별로는 정부 재정이 주로 투입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 명)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고, 제조업(-8만1천 명), 도매 및 소매업(-6만 명), 금융 및 보험업(-4만 명) 등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선 감소했다.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로 기록한 것도 빼놓을 대목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병원 치료나 육아·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23만8천 명 늘어

난 209만2천 명이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으며, 증가율도 12.8%로, 2011년(13.3%) 이후 8년 만에 최고다. 일반적으로 ‘쉬었음’ 인구는 경제 활동을 마무리하는 노인층에서 많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20대(17.3%), 30대(16.4%), 50대(14%), 40대(13.6%), 60세 이상(10.3%)에서 고루 높았다. 문제는 올해다.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25만 명 내외로 제시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좋다 해도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만 명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노동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도 각각 20만7천 명, 15만 명을 예상해 정부의 기대보다 크게 뒤떨어진다.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대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든다 해도 눈앞의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나랏돈을 쏟아붓는 것은 지속되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30~40대 일자리가 늘고,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20대, 60대의 고용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고용시장이 양적·질적으로 개선되려면 민간에서 양질의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 2. 봉사단 위촉 기준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매,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입문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 4.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 5.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 충북하나센터(주)면사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11일 협약식... 위기대상자 2가구에 매월 30만원 지원 이탈주민 자립·자활 필요 취업에도 적극 협조 약속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가 위탁 운영하는 충북하나센터(센터장 백운기)는 11일 (주)면사랑(대표 정세장)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주)면사랑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공헌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에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지역정착을 돕고 있는 하나센터로 먼저 연락하여 협약이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2019년에 하나센터에서 조사한 위기대상자 151명 중 지원이 꼭 필요한 2가구에 매월 3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에 가장 필요한 취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충북하나센터 백운기 센터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경제·

나센터로 먼저 연락하여 협약이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2019년에 하나센터에서 조사한 위기대상자 151명 중 지원이 꼭 필요한 2가구에 매월 3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에 가장 필요한 취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충북하나센터 백운기 센터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경제·



충북하나센터와 (주)면사랑은 지난 11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취업의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였고, (주)면사랑 정세장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북한

이탈주민이 특성과 어려움을 알았고 정착을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주변 어려운 이웃,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세요”

###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카카오톡 채널' 확대운영 최신 복지서비스·시민 필요 정책 등 효과적으로 알려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카카오톡 채널'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 주민과 함께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복지 위기가구를 찾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다. '카카오톡 채널'은 최신화된 복

지서비스,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에 더해 복지위기가구가 휴대폰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복지관 직원 4명이 기초상담 후 가정방문, 사

레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에 '채팅하기' 기능을 추가했다.

채팅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채널에서 기존 카카오톡을 이용하듯 민원 사항 등의 문의 내용을 적으면 빠른 시간 안에 관련 답변·처리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채팅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카카오톡에서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광훈 관장은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카카오톡 채널이 복지위기가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발굴·지원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는 활동에 함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 지원을 위해 문화동 건강복지타운 복합복지관 내 분관을 추가로 설치·지원하고 있다.

## '자살예방·생명배달'...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생 모집

### 충북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수료 후 '봄봄' 통해 참여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배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 교육은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발하였고, 2015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인중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자살예방을 돕는 사람으로 충북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동안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단체교육은 일시 및 장소 조율 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진행 후, 충북 생명지킴이 위촉장 수여식이 있고, 추후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발한 충북 생명지킴이 활동 웹시스템 '봄봄'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와 활동캠페인 부스 및 심화교육 등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070-4948-9806)를 이용하면 된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는 (주)우영스톤과 함께 주거복지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대리석 식탁을 지원 한다.

## (주)우영스톤, 사회복지시설 대리석식탁 후원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와 주거복지지원사업 맞춘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는 (주)우영스톤(대표 정현

균)과 함께 주거복지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 생활시설과 이용시

설에 대리석 식탁을 지원 할 계획이다.

(주)우영스톤은 인조대리석·엔지니어스톤 전문 시공업체로 2014년 청주에 설립되어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100억 매출 규모의 업체이다.

작년에 이어 지속적인 주거복지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주)우영스톤 정현균 대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기회가 허락한다면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2019년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를 통해 주거복지지원사업으로 대리석 썬크대와 식탁 등 4천여 만 원 상당의 자원연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 바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진행되는 주거복지지원사업은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인 광화원 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 이용자와 종사자들이 머무는 식당의 식탁을 위생적인 대리석 식탁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약 1,400만원 상당의 후원금으로 진행 될 계획이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에게 주거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지원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젊은치매' 사회서비스 부족... 우리는 어디로

(65세 미만)

### 3월 11일~6월 3일 매주 수요일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센터장 김시경, 충북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65세 미만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초로기치매 환자만을 전문으로 하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개설·운영 한다.

65세미만 젊은 나이에 치매가 발병할 때를 '초로기치매'라고 부르며, 일반사람들에게는 젊은 치매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충청북도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18,206명으로 이중 65세 미만의 치매환자는 전체 등록된 치매환자의 2.3% 428명으로 조사되었다.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치매는 초기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성과

같은 질환으로 착각하여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노년기치매에 비해 진행속도가 빠르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 우울과 불안, 성격변화를 보인다. 활발한 사회활동 중인 40~60대 치매 발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영향이 미쳐 경제적 붕괴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 부족으로 고립감을 경험하고 가족들의 부담부담이 노년치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2019년에 이어 금년에 운영하는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초로기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젊은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의 특성을 토대로 개별화에 초점을 두어" 본인 가족, 나의 경험, 사회적 이슈를 이용한 현실감각훈련과 암기

단어의 기억요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류배제학습, 암기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시간차회상을 복합하여 가족 및 보호자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만들기,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관람을 추가로 구성하여 대상자의 우울증 감소와 자기효능감 증가, 가족부양자의 부담부담과 스트레스를 감소하도록 구성했다.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의 초로기 치매환자 프로그램에 참여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https://chungbuk.nid.or.kr/>) 공지사항 또는 전화(☎교육지원팀 043-269-6892) 통해 초로기인지재활프로그램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증평군 "행복가족상담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확립"

### 가족센터, 상담실 운영... 4명 전문상담사 활용 갈등 해결

증평군가족센터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해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행복가족상담실을 운영한다.

센터는 4명의 전문상담사를 활용, 부모-자녀간·부부간 관

계 개선과 비혼청소년 임신감등 등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개인·가족 상담을 통해 해결한다. 개인상담은 6회기, 가족·부부상담은 10회기의 기본상담을 제공하며, 심층상담이 필요할 경우 사례회의

를 거쳐 추가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가족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043-835-3572~9)로 사전예약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행복가족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지역 내 장애인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사업인 '온달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군내 사회복지 유관기관 10개소와 협약식을 가졌다.

##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 '온달 커뮤니티' 사업설명회... 10개 유관기관과 협약식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7일 지역 내 장애인통합 돌봄체계구축사업 '온달(따스하고 달달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지역내 사회복지유관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온달 커뮤니티 사업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3개년 성과확산형 사업으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충청북도협회에서 주최하고 옥천군노인

장애인복지관 주관하는 사업이다.

이 협약식에는 옥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옥천지역자활센터, 옥천자원봉사센터, 옥천군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역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옥천지부,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옥천군청 희망복지팀,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거주시설 청산원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에 옥천군내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성인 재가장애인이 지역사회내에서 정착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돌봄 서비스 및 자원연계, 사례공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군장애인복지관장은 "온달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협약식으로 옥천지역내 사회복지유관기관이 지역사회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www.043w.or.kr

충북복지넷

# 2020년도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따라

### 장애인 취업·교육 등 활동 지원... 취약계층 임신·출산 의료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0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공고했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임

- 대상사업 및 2020년도 사업 규모 <표1>

####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 □ 서비스 가격 <표2>

##### □ 서비스 대상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성인(청년)심리지원서비스 대상자에 시군구정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및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을 포함

\* 개정 표준모델(안) 지자체 안내 및 기준정보 변경(20.1.)

- 장애인활동지원 :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사회활동 여부, 가구환경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일정 점수(42점) 이상인 자

\* 2011년 1급 → 2013년 1~2급 → 2015년 6월 1~3급 → 2019.7월 이후 장애등급 무관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서 "기초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 장애인·다자녀(2명 이상) 가구"까지로 확대

##### □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1) 서비스 내용 <표3>

2) 발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140% 이하, 연령기준, 육구기준은 서비스별 상이

\* 소득기준 미적용(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등 지역별·서비스별 상이

3) 수혜자수 : 296,754명(19.12월말 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1)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좌욕지원,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신생아 감염 예방·관리, 산모·신생아 세탁물관리 및 방청소

2) 발급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0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3)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4) 지원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5) 대상자수 : 총 140,384명

####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1)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2) 발급기준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65세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3) 서비스 단가 : 월 348,000원(24시간)/월 391,500원(27시간)/월 580,000원(40시간)

\* 시간당 14,500원

4) 대상자수 : 총 11,750명

5)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제공인력 수 : 5,558명)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1)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2) 발급기준

- 만 6세~64세의 모든 등록 장애인, 소득 제한 없음

- 수급자격 : 신청자에 대한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인정된 자

#### 발달 재활 서비스

1)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2) 발급기준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장애아동),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서비스 단가 : 1회(50분) 기준 27,500원이 기본 단가이나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제공기관별로 단가 상이

4) 대상자수 : 총 61,094명

#### 언어발달 재활 서비스

1)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2) 발급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3) 서비스 단가 : 1회(50분) 기준 27,500원이 기본 단가이나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제공기관별로 단가 상이

4) 대상자수 : 총 550명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1)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인 및 단체 심리상담을 12개월 간 제공

- 필요한 경우 일부 회기는 부부 상담으로 진행 가능

2) 발급기준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중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성인포함,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 대신 의사 소견서로 갈음

3) 서비스 단가 : 1인당 월 200천원 이내(정부바우처 지원액 월 160천원이며,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4) 이용자 비용부담 기준 : 월 최소 4천원~최대 4만원(제공기관별로 단가 상이)

5) 대상자수 : 총 567명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1) 사업 내용 :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인일부 부담금(급여 및 비급여)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건강보험 부가급여, 국민행복카드) 제공(08.12월 시행)

2) 운영방식 :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위탁운영 <그림1>

3) 지원대상

- 임신 및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1세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포함)

4) 지원범위

- 임신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비용) 결제(약국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 이용가능)

- 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등(약국 포함 모든 요양기관 이용가능)

5)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60만원 내(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00만원 내)

6)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에 정입)후 1년까지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1) 서비스 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 부담 의료비 또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매 비용 중 본인 부담비용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에 정입(유산진단일, 출산일) 이후 1년까지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 사업 내용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 육아 필수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부유 가구

3)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까지(최대 24개월)

4) 지원금액 : 기저귀(구매 비용 정액 월 64천원)지원, 조제분유(구매 비용 정액 월 86천원)지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 서비스 내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소계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2) 지원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소득수준 무관 소 계층)

3) 대상자수 : 0~2세반 653천명, 장애아 12천명

4) 서비스 제공기관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 서비스 내용 : 성인 발달장애인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56/100/132시간 제공

2) 발급기준 : 만18세~64세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장애인)

3) 서비스 단가 : 시간당 13,500원(본인부담금 없음)

4) 대상자수 : 총 4,000명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1) 서비스 내용 : 청소년(만12세~만17세) 발달장애인에 방과후돌봄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제공

2) 발급기준 : 만12세~17세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장애인)

3) 서비스 단가 : 시간당 13,500원(본인부담금 없음)

4) 대상자수 : 총 7,000명

####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소재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신청)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소재지의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기타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 보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로 전화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시 사업내용과 신청 및 이용 절차, 제공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표1> 대상사업 및 2020년도 사업 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9년 예산(국비)	2020년 예산(국비)	대상자(명)(주계)
계	4,918,685	5,218,153	1,638,467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70,147	182,700	300,000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77,696	95,910	140,384
3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28,985	32,925	11,750
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106,083(예비비 포함)	1,305,672	91,174(예산 기준, 연평균)
5 발달재활서비스	82,970	88,999	61,094
6 언어발달지원서비스	796	796	550
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730	730	567
8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 건강보험 청구시 지급하므로 별도의 예산책정 없음	306,708
9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300	300	700
1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7,424	17,424	49,603
11 영유아보육료 지원	3,405,282	3,416,221	664,937
1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9,103	43,417	4,000
13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9,169	33,059	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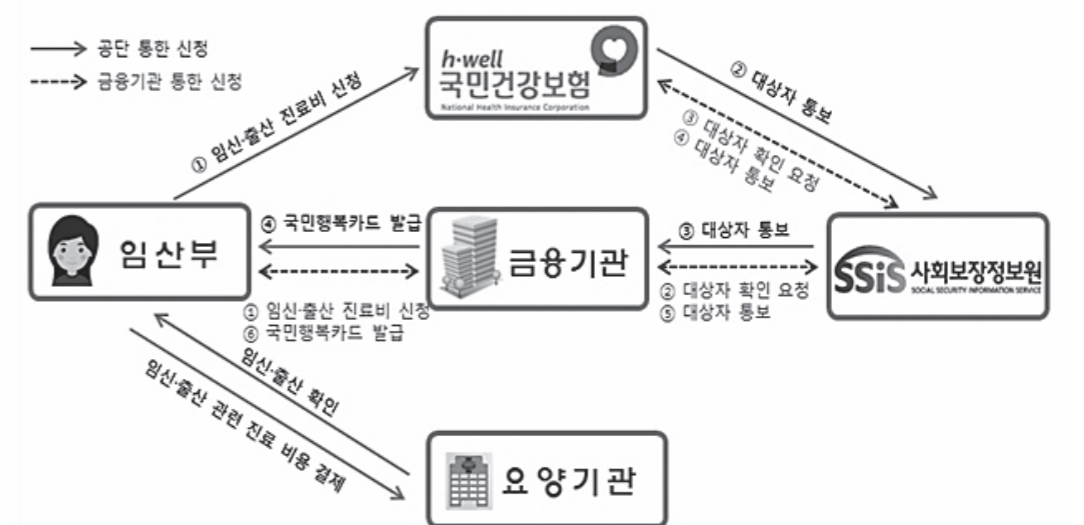
<표2> 사업별 서비스 가격

사업명	2019년(A)	2020년(B)	증감(B-A)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단태아기준)	112,000원/1월	116,000원/1월	4,000원
가사간병방문지원	14,000원/시간	14,500원/시간	500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2,960원/시간	13,500원/시간	540원
발달재활서비스	22만원/월	22만원/월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22만원/월	22만원/월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16만 원/1월	16만 원/1월	-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	50만 원/1회(다태아 90만원/1회)	60만 원/1회(다태아 100만원/1회)	1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120만원/임신 1회당	120만원/임신 1회당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64,000원/조제분유 월86,000원	기저귀 월64,000원/조제분유 월86,000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평균 351천원/월	평균 409천원/월	58천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2,960원/시간	13,500원/시간	540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12,960원/시간	13,350원/시간	390원

<표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내용

사업군	사업유형	서비스 내용
아동재활	영유아발달지원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대근육, 소근육 운동, 언어발달,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정서, 사회성 발달 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언어, 인지, 놀이, 미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제행동 감소 및 정서행동장애로의 악화 방지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정서불안, 문화적 소외 아동 등에게 클래식 악기 교육 및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제공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대체활동 등을 통해 인터넷 과몰입 치유
아동 역량개발	기타	아동비전형성지원, 아동 리더십, 아동 문화활동 지원 등
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	노인 장애인 돌봄여행	신체적 특성으로 여행 욕구 충족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에게 전문 돌봄인력 동반 여행 서비스 제공
	기타	노후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등
신체건강관리	시각장애인 안마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등의 증상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안마, 마사지, 지압 및 자극요법 제공
	노인 맞춤형 운동	고령자 건강상태 점검 및 맞춤형 수중 또는 불·밴드 운동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비만아동건강관리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정신건강관리	보조기기 렌탈	장애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자세유지도구 렌탈, 리폼 서비스
	정신건강토크케어	정신질환자와 가족에게 일상생활 지원, 증상관리,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가족 역량강화	기타	자살위험군 예방관리 등
	기타	다문화가정 사회참여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통합지원,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등

<그림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운영 방식·운용 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광장

복지 사각지대와 줄줄새는 나랏돈?



최인석

(사)충북사회복지개발회 상임이사

복지사각지대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인 '복지'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각도를 뜻하는 '사각지대'의 합성어로 법정 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해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 혹은 이에 처한 사람들을 말한다.

선진국 반열에 근접해가는 한국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살하기 3년 전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타진했으나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재신청을 하지 않고 생활해 왔었다고 한다.

2018년 4월 6일에 발견된 증평 모녀 자살 사건도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던 남편이 자살로 사망한 이후 고정 수입이 없어 생활하다가 빚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딸과 함께 동반 자살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도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나 사망한 지 한참이나 지나서 발견된 '고독사'라는 점은 송파 자살 사건과 많이 유사했다.

올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과 여섯 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모자도 경찰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숨진 모자가 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증평 모녀 자살 사건', '탈북자 모자 아사 사건'은 모두 생활고를 겪던 '여성들이 다다른 죽음'들이다. 참담하다.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발굴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혼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겹게 버텨오다 죽음에 이르렀으며, 경제적 어려움의 징후를 보였으며, 법적인 시스템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존재하였으며, 주변으로부터 소외된 그들은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따뜻한 손길은 끝내, 그들에게는 닿지 않았던 것이다.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부양의무조건을 완화하고 지원방식을 조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현행 공공복지서비스체계로는 지원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한편에서는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삶을 마감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속설을 확인이라도 하듯 보조금 부정 수급이 엄청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보조금 수급 실태 집중점검 결과 12만869건에 총 1,85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647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부정 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 제도의 혜택을 알지 못하여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불법으로 편취하여 자기들의 잇속을 채우는 사람들이 존재 하는데 이를 어찌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는가?

부정으로 수급된 돈의이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 모두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분들을 위하여 나눔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해 이웃의 어려움에 희망의 손길을 내민다면 우리사회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한다.

복지포럼

우한코로나 사태와 가짜뉴스의 폐해



박상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출판홍보위원회 위원장

혼란스런 사회일수록 온갖 루머가 판을 친다.

지금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대한민국이 그렇다.

사람자도 점차 늘어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한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뒤송송한데 지인에게 문자가 왔다.

'우리나라 인구 중 2천만 명이 감염돼 20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는 내용이다.

사실이라면 끔찍한 일이지만 명백히 가짜뉴스(Fake News)다. 국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위기를 충분히 극복 할 수 있다. 이런 가짜뉴스는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증폭시킨다.

최근 들어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 대해로 수심이 가득 차 있다. 막연한 공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변화한 도심지와 영화관, 다중이용시설은 한산했다.

다만 대형마트엔 식료품 사재기를 하려는 마스크를 쓴 고객들로 붐볐다.

심지어 지진이나 전쟁 파우의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싸 놓는 생존배낭도 날개돋힌 듯 팔리고 있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상황이다. 정부의 대처가 못미더워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SNS를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는 이런 현상을 파고든다.

비밀이 진실을 잃는 순간 그것은 찌라시가 된다. 영화 '찌라시-위험한 소문의 명대사'다.

'찌라시(ちらし)'는 증권을 정보지를 뜻하는 은어지만 지금은 SNS가 찌라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온갖 루머의 진원지다. 사실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거짓도 많다. 작성자가 다양해 유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덧붙여져 확대 재생산되기도 한다.

산되기도 한다.

SNS를 통한 전파력은 거의 빛의 속도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는 우리사회에 치명적인 해악이 될 수도 있다.

가짜뉴스는 얼핏 보면 진짜같이 보이지만 조작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트래픽을 노리거나 장난삼아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론조작이 목적이다.

가짜뉴스는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 때문에 아무리 정정 보도 자료를 내고 해명을 해도 어느새 팩트가 돼 버린다.

심각한 것은 독자들은 진짜뉴스보다 가짜뉴스에 더 반응한다는 점이다.

국내자료가 없어 미국자료를 찾아봤다. 인터넷매체 '버즈피드(BuzzFeed)'가 2016년 11월에 낸 분석 기사에 따르면 미국 대선 전 3개월간 가장 인기 있었던 가짜 뉴스 20개의 페이스북 내 공유, 반응, 댓글 수는 871만 1천건으로 736만건인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권위 있는 매체를 앞섰다.

지금 우한코로나로 전쟁을 치르는 우리나라도 발등의 불이 됐다. 허위뉴스가 범람할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례는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충북에서 확진자가 1명도 안 나왔을 때 누군가 확진자가 충북대병원을 다녀간 것처럼 SNS에 올려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또 '퍼뜨려 주세요, 뉴스에 안 댔는데 현재 경우 우한 폐렴 확진자 2명 있다고 합니다(중국인 아니고 한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 '인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자가 나왔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생산·유포돼 국민들의 패닉 현상을 더욱 부추겼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에 엄정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욱 절실한 것은 장난삼아 SNS에 올리는 사람들은 가짜뉴스가 우리 이웃들에게 큰 불안감과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사회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들의 그릇된 행위가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목소리



박진솔

우리들정신건강센터 사회복지사

나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한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 1년이 되지 않은 시간동안 일을 하면서 답답했던 적이 많았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로써 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이곳저곳에 연락할 일이 생겼다.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하거나 사업체견학을 위해 연락을 했는데 황당한 말들을 많이 들었다. 식당을 예약할 때에는 '그들의 특성 상 먹을 것을 질질 흘리지 않아요? 웃으면서 조리하는 사람들에게 덤

벼들면 어찌죠?'라는 말을 들었다.

듣고 약간 기분이 상해 '네?'라며 되물었다. 나는 우리 회원들의 질환을 이야기하고 특성에 대해 말을 했지만 그 직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신의 생각만 내세웠다. 이렇게 한번은 고비 아닌 고비를 넘겼다.

계속해서 기분이 안 좋았던 사회적인 편견과 분위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넘겼다. 몇 달 후 사업체 견학을 위해 이곳저곳 연락을 했었다.

'정신질환자면 위험한 거 아니가요? 지켜보는 사람이나 직원들이 함께 동행 하나요? 공격적일 것 같은데 괜찮나요?' 아직까지도 이 말이 귓가에 맴돈다. 이 때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 태도가 옳지 않다고 반박을 했어야 했는데 순간 정신이 멍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뒤늦게 정신질환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지만 그 식당직원과 같이 내 말은 듣지도 않은 채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지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도 상황은 비슷했다. 신체 장애인들은 많이 채용해보고 겪어봐서 능숙하지만 정신질환자의 경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아 확답을 못주겠다는 말을 반복할 뿐 우리를 반겨주는 곳은 극히 드물었다.

어쩔 때는 이러한 반응이 긍정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 어떤 곳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바쁘다며 전화를 푼다 버린다. 회사 사람들도 바쁘게 거기서 정까지 봐줘야 하며 자신이 움직여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오는 부분이 있는지 묻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 내 기분은 하루 종일 최악이 되고 회원들에게도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된다.

내가 조금만 더 말을 잘했다면... 항상 그 사람들을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탓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정신질환자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문은 매우 비좁고 장애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의 문은 더욱 좁았다. 아무리 사회로 나가려고 애를 써도 밖에서 그들이 미워했다.

나는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의 힘겨움을 느낄 수 있었다. 장애인들이 뉴스에서 조현병으로 여러 사건사고가 일어나 무서워할 수 있고, 두려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이 맞는가 생각되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이들이 싫었고 미웠다.

사람들의 이러한 선입견에 박혀버린 태도가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아픔이고 상처가 된다. 한 회원이 직접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정신질환을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밝히라고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그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싫어요. 어떠한 실수가 발견되면 무조건 그 실수의 주인공은 바로 저예요. 선생님들은 장애인인 아니니까 직접 겪어볼 일이 없기에 잘 모를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 가혹한 현실이예요. 우리만 노력을 하면 뭐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그대로인 걸요. 이 사회는 비장애인인 장애인인 엄연히 다른 사람이 아닌 틀린 사람으로 정의돼요.'

정신질환자들에게 무조건 친절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치켜세워달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단지 그들을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을 해주고 그들의 말에 한번이라도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서있을 수 있는 공간을 달라는 것이다.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공간 말이다. 본인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들을 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그들을 겪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좋은 사람일 수 있다. 생각보다 그들이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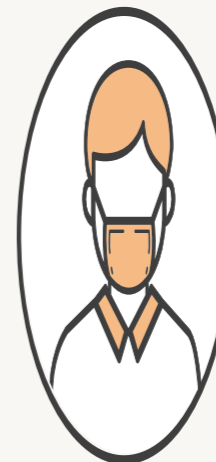
정신 질환자를 대하는 태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때 손이 아닌 옷소매로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 예방수칙



이 달의 법률상식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이 취해야 할 법적 절차



라혜영 변호사 <법무부 인권주조>

Q. 남편이 얼마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채무 지급을 구하는 독촉장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하는데, 저와 제 아들이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과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우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내역을 잘 모를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조회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피상속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

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가장 마지막 상속인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위 상속채무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순위 법정상속인 중 최소한 1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위 상속채무가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본은 한정승인을 하고 아들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상속인 역시 상속채무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보 제공

[행정안전부]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개선과제 공모전

- 공모기간: 2020.2.6.(목) ~ 2020.3.6.(금) (30일간)
응모자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 사업장, 지자체 등
공모주제: '청년이 직접 바꾸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정착, 창업, 민간취업연계형 3대 유형별로 사업에 참여하며 겪은 애로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
공모방법: '작성서식' 개선과제 제안서'를 작성 후, 이메일(regionaljobs@korea.kr)로 제출
당선자발표: 2020.3.18.(수)
시상내역: 최우수 3명(각 30만원), 우수 6명(각 20만원), 장려 14명(각 10만원)
최우수, 우수작은 각 유형별로 선정하고, 장려상의 경우 유형공통으로 선정
참고: https://www.mois.go.kr

- 해결하고자하는 공동체 모두 신청 가능
신청 법인의 구성원이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100% 지역주민(기초 지자체기준)이어야 하며,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 주민 비율이 70% 이상인 단체
\* 단순 친목회 등 사적모임, 동아리, 영리 목적 등 일반 단순모임인 경우 제외
관련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인 경우 우대
기관의 구성원 가운데 대통령이 정한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인 곳 우대 (증빙자료 필수)
접수방법: 드림위드 홈페이지(http://dreamwith.gni.kr/) 지원하기
\* 사업 신청 관련 서식은 드림위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서류심사: 2020.3.9.(월)
최종선정: 2020.3.24.(화)
문의: 02-6424-1558, 02-6424-1585
참고: http://dreamwith.gni.kr

다문화가정아동, 장애아동 등

-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아동청소년팀 (02-331-7163)
[푸르메재단] 2020 SPC 장애어린이 정형신발 및 인솔 자원사업 안내
접수 기간: 2020.2.10.(월) ~ 3.6.(금)
지원대상: 기본 지원 조건: 만 18세 미만(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가 있는 어린이 중 발 기능 장애, 발의 변형 및 발 길이의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최소 지원 조건: 최소한 한쪽 다리 발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지원내용: 지원항목: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구입비
지원금액: 1인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인원: 10명 내외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제작업체: 지역 내 정형 신발 및 인솔 제작이 가능한 업체(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업체)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지원결과 및 발표: 2020.3.27.(금)
문의 및 신청서 제출: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02-6395-7018)
참고: http://purme.org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함께 여는 자문문' 무료 자문신청서 캠페인 공고

- 접수기간: 상시접수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
신청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문의: 1899-7081 또는 coad@coaddoor.com
참고: https://www.bokji.net

[홀트아동복지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너라서'

- 지원대상: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일반 저소득가정/중위소득 80% 이하)
신청접수: 2020.2.14(금)~2020.3.15(일)
신청심사: 2020.3.16(월)~2020.3.20(금)
최종선정 및 발표: 2020.3.23(월)
지원기간: 2020.3 ~ 12(10개월)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000,000원 의뢰비 지원(모금사례 선정자 중, 필요 시 추가 지원 가능)
선정기준: - 0세(미숙아)~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적 치료지원이 시급한 아동·청소년
지원 대상 범위 안에 해당되는 아동·청소년
우대지원대상: 모금사례 제공 동의자, 조손가정아동, 입양대상 및 입양가정아동, 장애아동, 시설보호아동, 한부모가정아동, 다문화가정아동, 탈북민가정아동.

[푸르메재단] 2020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부모심리, 상담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2020.2.6.(목) ~ 2020.3.20.(금)
지원내용: 부모심리, 상담치료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기간: 2020.4. ~ 2020.11.(최대 8개월)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선정발표: 2020.4.3.(금) 예정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0년 4월 ~ 2020년 11월)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02-6395-7018)
참고: http://purme.org

[굿네이버스] 한국타이어나눔재단과 함께하는 2020 드림위드 - '우리마를 LEVEL UP 프로젝트' 참가단체 공모 안내

- 사업기간: 2020.4. ~ 2020.12, 총 9개월
공모기간: 2020.2.14.(금) ~ 3.5.(목), 총 21일
공모대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현안을

자원 봉사자 모집

- 문진안내 봉사
관리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청주성북동상담소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64-1366
미술교육 지도
관리센터: 늘푸른아동원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36-6696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16-0031
영어, 수학 학습지도
관리센터: 동산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73-5075

-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청주내덕노인복지관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16-9811
지역아동 학습지도
관리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855-1090
발달장애인 적응지원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95-2505
업무보조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84-0103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67-4590
문화예술 공연 봉사
관리센터: 수정노인의집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18-3436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다사랑회, 한글·한자 교육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정숙) 소속 다사랑회(회장 김정숙)는 지난 2월 10일 청주시 우암동 평화 상가 새로운교회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자 교육을 하였다. 다사랑회는 2013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숙 회장은 "매주 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배움에 즐거움을 느끼시는 대상자분들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면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

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sn@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대체인력지원사업(앤드) 참여기관모집안내
\*사회복지사업의 사회복지시설을 연결하는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명칭을 간소화하여 (앤드\_AND)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신청기간: 2020년 12월 말까지>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여성가족부 소관 생활시설, 이용시설(복지관) 포함 (현재526개소)
- 노인장기요양병 적용대상시설은 지원제외
- 사업기간 중 신고되는 시설은 지원 제외
- 5인 이하 이용시설 신청가능
신청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기타사항: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상시인력 모집중(기관추천 가능)
단기인력 수시 모집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전파차단을 위하여 중국에서 입국한 시유 등으로 14일간 업무가 배제되는 경우 파견자 (앤드)를 파견지원 해드립니다.
\*대체인력지원사업(앤드)을 연결해주는 대체인력 파견자가(앤드)라는 이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TEL. 043-232-2213,2290
FAX. 043-232-4413
홈페이지: http://cbasw.or.kr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충청북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복/지/만/평
마스크
이창신 www.bokmani.com
마스크를 쓰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마스크를 쓰면 혐오를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An illustration showing a person wearing a mask, with a speech bubble containing a gun and a knife, symbolizing the spread of hate through anonymous masks.)